

News

가계·기업, 은행 대출 받기 쉽다… 심사 완화 지속

머니S

올 1분기 국내은행의 전체 대출태도지수 13 기록… 전분기 14대비 소폭 낮아져… 한은, 금융기관들이 주담대 중심으로 완화적 태도 유지할 것으로 전망

1분기 가계주택대출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28로 전분기 19대비 높아져… 가계대출 규제 완화와 대출 증가율 둔화에 따른 은행간 경쟁 심화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한다…'평균 인하금리'까지 공시

연합뉴스

금감원, 내달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 수용해 금리 얼마나 내렸는지 공시 예정… 수용률 공시 개선 및 수용률 공시 대상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직접 은행 창구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일 때 차이 알 수 있도록 신청률 추가 공시 방침… 평균 금리 인하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 공시 보완하기로…

금전 필요한 서민들…카드론 줄이고 리볼빙 늘리고

아시아경제

카드사 9곳의 작년 12월 말 기준 리볼빙 잔액 총 7조 3,574억원으로 집계… 전년말대비 1조 2,125억원 증가한 규모… 작년 3월부터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역대급 규모

단기카드대출 역시 가파르게 상승해 누적 이용액 총 63조 9,852억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 고금리 시대에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며 저신용자들 몰린 것으로 풀이

금융권 PF 대주단협의회 가동 준비…경착륙 위험 대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5대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유관기관 등과 부동산PF 점검회의 개최… 금융시장 안정 속 부동산PF 발 경착륙 우려 등 인식 공유

금융당국, 금융권에 부실PF 발생 위험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PF 대주단협의회 가동 요청… 채권금융기관 간 공동관리를 통해 부실PF 사업의 구조개선과 사업정상화 도모

11년만에 맞오른 보험사 공개매각…MG손해보험, 흥행할까

이데일리

예보, MG손해보험 공개매각 시작한다고 공지… 매각 주관사는 삼정회계법인… 입찰은 2월 21일까지 받을 예정… 이변없다면 이르면 상반기 내에 매각절차 마무리 예상

다만 JC파트너스가 본안소송 낸 상태라 소송은 현재 진행형… P&A방식으로 인수될 가능성 높아… 계약자보호 등의 이유 때문… 흥행 여부는 미지수

체외충격파치료? 잠시만요… 메리츠화재, 보험금 지급기준 높인다

머니S

메리츠화재,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착수… 손보사들,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건에 사례별 조사 중

손보사들, 조사 마친 후 구체적인 지급기준 강화 방안 마련 예정… 현재까지는 명확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없어 청구에 악용되어왔던 것이 사실… 과잉의료 사례 많기도…

채권 개미 급증에 5대 증권사 리테일 채권 잔액 44.2조…1년새 20조↑

뉴스1

국내 5대 증권사, 2022년 말 기준 리테일 채권 잔액 총합 44조 2,000억원으로 나타나… 작년말에서 약 80.5% 증가한 수준

금리인상 본격화에 주식시장 침체되며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아진 채권 투자에 개인들의 뭉칫돈 몰린 것으로 나타나… 각 증권사별 온라인 통한 채권매매 활성화 적극적

한국거래소, 자체 야간파생시장 개설 착수

한국경제TV

한국거래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야간시장 추진 중… 관련 팀 꾸리고 시스템 마련에 착수… 현재까지 정규장 이후 일부 파생상품 거래하려면 Eurex 이용해야해…

한국거래소가 직접 운영하는 파생상품 야간시장이 생기더라도 당분간 Eurex와의 연계는 지속될 예정… Eurex로 유입되는 해외투자자도 잡겠다는 의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헌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